



협회 일보



제 823호

2024.4.8.(월)

환경공단, 현장정보 전송시스템 애로사항 개선추진

- ◇ 실무협의체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 검토 후 GPS 실시간 대시보드 등 개선
-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현장 기술지원 추진 및 질의회신(Q&A) 배포 예정

우리 협회는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23.10.1)에 따른 우리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환경부와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정례적으로 업계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공단에서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장정보관리시스템의 'GPS 실시간 대시보드'를 개선('24.2.29)하였으며, 차량번호 인식률 개선과 시스템 안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위 제도에 대한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질의·회신사례(Q&A)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한편, 환경공단에서 수집·운반 관련 Q&A를 기배포('24.3.29)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현장정보관리시스템 공지사항(www.allbaro.or.kr/siren) 및 협회 공지사항(www.koras.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정보 전송제도 관련 수집·운반 분야 주요 질의회신(Q&A) 사례>

Q1. 폐기물 운반 외에 차량을 사용할 경우에도 위치정보 전송이 되는지?

A1. 추후 올바로 인계서와 비교하여 폐기물 관련 정보만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Q2. 탈·부착형 GPS 한 대로 여러 차량에 사용 가능한지?

A2. 현장정보관리시스템에서 기존 차량의 GPS단말기 등록정보 삭제 후 신규 차량에 등록하면 사용 가능

Q3. 기기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A3. 별지 서식의 현장정보 전송장치 장애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환경공단 본사)에 전자정보프로그램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Q4. GPS의 고장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지 ?

A4. 펌웨어형 단말기내에 상태표시 LED(초록색: 정상, 빨간색: 이상)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현장정보관리시스템 마이페이지에서 정상작동되고 있는 차량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할 계획임